

1980년대 북한 사회의 발전과 좌절의 기로

김귀옥(성공회대 연구교수, 사회학)

1. 1980년대 북한 사회, 이상(理想)과 좌절

북한의 수도 평양의 한가운데에는 한때는 아시아 최고를 꿈꿨던, 1980년대 후반 짓다만 105층의 거대한 '류경호텔'이 있다. 아름다운 평양 시내에 우뚝 솟아 있는 류경호텔은 이제 북한의 과거가 되어 가고 있다.

과거는 현재의 정사영이라고 한다. 즉 현재 속에서 과거의 자취를 찾을 수 있고, 현재에 나타나는 결과는 과거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럼 1980년대 북한 사회는 2004년 북한 사회와 어떤 관계를 갖는 것일까? 우선 현재의 관점에서 북한 사회를 보면 현재의 북한사회의 모순과 문제를 1980년대에서 보다 잘 발견할 수 있다. 2000년대 들어 북한이 취하고 있는 경제부문의 일련의 개혁·개방 조치들은 1980년대까지 북한의 경제정책을 포함한 사회정책의 문제점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한 예로 1990년대 식량위기는 1970, 80년대 시행된 '주체농법'이 가진 문제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¹⁾

한편 과거를 현재의 정사영이라고 함은 현재를 과거와 연속선상에서 본다는 것이다. 1980년대 북한 사회의 모순과 이상(理想) 역시, ‘강성대국’론, ‘실리사회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2004년 현재, 북한 사회를 독해하는 데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 북한이 나가려고 하는 방향을 이해하는 데에도 지난 시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최근 ‘제2의 3대혁명소조운동’, ‘제2의 천리마 대진군운동’ 등은 원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는 알 수 없다. 또한 그러한 운동 속에는 북한이 1980년대 ‘완전 승리한 사회주의’ 태제로 돌아가지는 못하겠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즉 사회주의의 깃발을 내리지 않았다.²⁾

아무튼 1980년대 사회주의권 대지가 변동 속에서 북한과 쿠바만이 나름대로 사회주의의 길을 가고 있다. 그와 동시에 그 두 나라는 개혁·개방노선에 동참하지 않은 대가를 1990년대 특특히 치러야했고, 무성했던 붕괴설 속에서도 두 나라 모두 살아남았다.

그렇다면 북한 사회를 현재적 관점에서 볼 때 두 가지의 의문이 동시에 생기게 된다. 1990년대 경제위기를 가져왔던 동학은 무엇인가와 1990년대 조기붕괴설과 그러한 예단을 가능하게 했던 외부적 힘의 존재 속에서도 망하지 않는 동학은 무엇인가? 경제체계의 위기는 사회체계의 위기로 전가되어 북한 주민들은 내뿜을 견뎌야 했다. 사회주의권의 동요 속에서 시장경제의 바다 속에 섬으로 떠있는 북한 사회는 ‘완전 승리한 사회주의’ 이상과 빈 밥그릇과의 전쟁이라는 딜레마를 어떻게 겪어나갔는가를 사회관계를 중심으로 한 사회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
- 1) 김영윤, 『북한 협동조합 개편 방향에 관한 연구』(서울: 북한연구원, 2002).
 - 2) 이런 입장에서 있는 연구서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정영철, 『북한의 개혁·개방: 이중전략과 실리사회주의』(서울: 선인, 2004).

2. 1980년대 북한 사회의 도전과 이상

1986년 북한이 완전 승리한 사회주의라는 목표를 적시하는 것은 그들의 이상에 대한 강력한 신념의 표현이었을 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세계정세, 특히 구 소련과 중국의 변화에 대한 반응이기도 하였다. 주변 환경의 변화에 대한 북한의 인식을 살펴보고 완전 승리한 사회주의 이상을 제시하였던 목표와 현실을 짚어보기로 한다.

1) 1980년대 사회주의권 대지각 변동과 북한의 도전

1980년대 북한을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1970년대 북한의 해외진출 경험을 빼놓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1970년대 북한 사회는 경제적 성장과 확대, 다양한 사회적 수요가 생기고, 그에 따른 사회 제도의 수립되어 나갔다.³⁾ 자체 기술·설비나 구 소련 및 중국에서 수입되는 기술·설비만으로는 국내에서 요구되는 설비와 기계 및 기술을 충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북한은 해외로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다. 1970년대 초 북한은 사민당이 집권하고 있던 프랑스, 오스트리아, 영국, 서독 등의 서구 여러 나라들이나 일본과 대외무역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1970년대 두 차례 불어닥친 석유파동과 부동산가교환으로 대외채무액이 급증하게 되자, 외채를 동결시키고 채무불이행국⁴⁾

3) 이태섭, “국가주석제와 북한 정치체제의 변화”(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석사학위논문, 1992), 70~71쪽.

4) 한국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1980년 당시 외채가 약 22억 달러이고 외신기자 인터뷰에서 김일성의 언급에 따르면 10억 달러이다.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1997); 『월간조선』, 10월호(1995). 그 후 북한의 외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만일 북한이 본격적으로 대외경제교류를 재개할 경우 외채 원금뿐만 아니라 25년간의 천문학적인 이자 처리문제도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라는 오명을 안은 채, 1970년대 개방정책은 실패하고 말았다.⁵⁾

1980년대 들어 북한에 대한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사회주의 종주국들인 구 소련과 중국의 개혁·개방의 바람이었다. 특히 1986년 김정일의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언급했듯이 구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뿐만 아니라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은 사회주의 단결과 지향을 해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당시 북한이 언급했던 ‘모기장’ 이론은 자본주의적인 것을 걸러내기 위해서 필요했다고 했지만 사실 그것은 자본주의 국가로부터 들어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구 소련이나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을 경계한 탓도 있었다. 그러한 모기장적 인식은 1980년대도 외부의 기술과 자금이 필요로 되었던 북한이 취했던 ‘합영·합작’ 정책에서도 나타났다.

북한은 중국형의 ‘경제특구’ 방식을 취하지 않고 평양 중심으로 합영·합작사업을 유치하여 내부적으로 자본주의적인 문화나 제도가 자라는 것을 철저히 막아내려고 했다.⁶⁾ 다시 말해 평양 등과 같은 지역에 합영·합작, 위탁가공 기업 등을 설립함으로써 당적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자립경제노선을 벗어난 정경분리의 원칙이나 자유로운 경영활동은 허용되지 않았다.⁷⁾ 그러한 방식은 기술

5) 신지호·김연철, 『남북경협 GUIDE LINE』(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1), 79~80쪽. 북한에서는 당시 미국이 북한을 “국제무역에서 고립시키려고 로골적인 ‘경제봉쇄정책’을 실시하면서 우리나라와 경제거래를 하는 나라들에 압력을 가하는 것과 같은 비렬한 책동”을 강행했다고 주장하며 1970년대 후반의 유가 상승과 함께 기계설비 및 가공공업제품비의 급상승으로 인해 북한 원자재의 가격의 폭락으로 엄청난 손실을 보았던 당시 상황을 미국 주도의 부등가교환에 원인을 돌리고 있다. 최정근, “사회주의경제건설과 대외무역”, 『근로자』, 12호(1984), 47쪽; 정송남, “사회주의나라들과 경제기술적 협조와 교류를 강화하는 것은 우리당의 일관된 방침”, 『근로자』, 10호(1984), 51~52쪽.

6) 신지호·김연철, 위의 책, 82쪽.

7) 정영철,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사회학 석사학위논문, 1996), 56쪽.

이나 자본, 물류의 원활한 소통을 저해하고, 통관절차가 복잡하고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쉽게 받게 되어 사업자체가 성공할 수 없었다는 게 합영사업에 주로 많이 참여하였던 일본의 총련계 기업가들의 분석이었다.⁸⁾ 결국 1970년대 대외경제교류의 실패에 이어 1980년대 합영·합작 방식을 통한 대외 기술이나 자금의 유치 방식도 실패로 돌아갔다.

1980년대 북한은 사회주의권이나 비동맹국가들과의 교류 증대와 자체 자력갱생의 수준을 높이는 것에 사활을 걸었다.

우리나라에서 자본주의경제위기의 영향을 좀 받았다고 하면 그것은 일부 기계설비를 다른 나라에서 사다 쓰다보니 세계적으로 원유값이 올라갔을 때 기계설비값이 올라 그 영향을 좀 받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원유를 다른 나라에서 사다 쓰기 때문에 원유를 많이 쓰는 공업을 발전시키지 않고 우리나라의 원료에 의거하는 공업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⁹⁾

즉 자립경제노선의 강화였다. 1980년대 북한은 정치적으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체계가 자리 잡혀가는 시기였다.¹⁰⁾ 김정일의 영도체제와 영도예술에 기반으로 하여 주체사상과 수령제는 완성되는 한편 북한 사회는 더욱 경직된 성격을 띠게 되었다. 경제체제에서는 ‘대

8) 신지호·김연철, 『남북경협 GUIDE LINE』, 92~96쪽.

9) 김일성,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대하여”(1983.6), 『김일성저작선집』, 9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부, 1987), 170쪽.

10) 정영철에 따르면 김정일의 후계체제는 영도권을 계승함으로써 공식화된다. 그 시점은 김정일이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발표했다던 1982년이라고 보고 있다. 정영철, “김정일 체제 형성의 사회정치적 기원: 1967~1982”(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01), 303쪽. 정영철의 이러한 해석을 둘러싸고 논쟁이 있을 수 있으나 1980년 6차조선로동당대회에서 후계자로 공개되었다는 점을 놓고 볼 때, 1980년에는 사실상 내치(內治)는 김정일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안의 사업체제'에 따라 기업이나 공장은 운영되면서 계획경제가 꼭 짜여들어 갔고 사회적으로는 집단주의, 공산주의적 사회관계가 더욱 강화되었다.

2) 완전승리한 사회주의의 목표와 현실

1980년 제6차 노동당 대회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완전승리한 사회주의'를 목표로 제기하였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하여 첫째 "모든 문제를 자주적 입장과 창조적 입장에서 우리 식대로 풀어나가며", 둘째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노선을 관철"하고, 셋째, 당면 투쟁과업으로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는 것을 내세웠다.¹¹⁾

완전 승리한 사회주의 사회는 "사회발전의 견지에서 볼 때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가 끝나고 공산주의의 낮은 단계가 완전히 실현된 사회이며 점차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으로 이행하는 사회"로 규정되어 있다. 사회주의 완전 승리 단계를 설정한 것은 스탈린이나 중국의 사회주의 단계론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만, 이 글에서는 이 논의자체를 진전시키지 않겠다.¹²⁾ 완전 승리한 사회주의 사회에 대한 전망은 다음과 같다.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는 온 사회가 로동계급화되어 전체 인민이 국가와 사회의 평등한 주인으로서 지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

11) 돌베개 편집부 엮음, 『북한 '조선로동당'대회주요 문헌집』(서울: 돌베개, 1988), 367~368쪽.

12)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고승효, 김한민 옮김, 『북한사회주의발전연구』(서울: 청사, 1988); 김민웅, "북한의 '사회주의완전승리'제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정치학 석사학위논문, 1991).

는 완성된 사회주의사회입니다.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는 계급이 없는 사회이며 모든 사회성원들의 완전한 사회정치적 평등과 유족한 물질문화생활이 보장되는 발전된 사회입니다.¹³⁾

1986년 12월 30일 김일성의 시정연설에서 제시된 이러한 전망은 사회주의 승리에 대한 자신감의 반영이다. 동시에 당시 소련과 중국의 비사회주의적 개혁·개방노선에 대한 견제이자, 북한 지도부나 주민에 대한 결속과 완전한 사회주의 사회, 무계급사회의 실현에 대한 강력한 신심의 호소를 담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1980년대 북한은 완전한 평등과 풍요로운 물질이 보장된 사회라는 전망과는 달리 북한 스스로 인정하듯이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 음에도 사회에는 낡은 사회에서 물려받은 사상, 기술, 문화적 락후성이 많이 남아” 있고,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가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물질기술적토대가 약하고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생활이 웅당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¹⁴⁾

이러한 지적은 북한의 계획경제의 성과와 경제성장률에서도 반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노동당 6차대회에서 제시된 ‘10대전망목표’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무계급사회의 실현에 부합되는 생산력 수준의 목표라 할 수 있다. 6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전망 목표와 1986년 실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경제 전망목표와 실적 가운데 실제로 식량은 큰 차이를 보여 목표에 대해 북측은 66.7%정도의 실적, 남측은 41.7%정도의 실적을 올렸다고 한다. 식량문제와 직결되는 화학비료 생산에 있어서도 1984년 화학비료는 목표치의 48%정도 생산하였다.

13) 김일성,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1986.12.), 『김일성저작선집』, 9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부, 1987), 473쪽.

14) 위의 글, 473쪽.

<표> 1980년대 경제 전망목표와 실적

	단위	6차당대회의 전망목표*	제3차7개년 계획목표**	1986년 실적	1980년대 실적 남측 추정치***
전 력	억kwh	1,000	1,000	520	600(1985)
석 탄	만톤	12,000	12,000	7,800	3,900(1987)
강 철	만톤	1,500	1,000	673	760(1984)
유색금속	만톤	150	170	130	
시 멘 트	만톤	2,000	2,200	1,200	1,200(1984)
화학비료	만톤	700	720	520	336(1984)
직 물	억m	15	15	8(1984)	
수 산 물	만톤	500	1,100	360(1985)	
알 곡	만톤	1,500	1,500	1,000(1984)	626(1984)
간석지개간	만정보	30	30	-	

자료: * “당 6차 대회보고”

** “제3차 7개년 계획에 관한 최고인민회의 법령”

*** 『현대중국과 북한40년』

이 문제는 북한이 1970년대 후반부터 추진해온 ‘주체농법’의 문제와 관련지어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1970년대 초반 농업에서 자립도 달성을 선언하였으나, 1970년대 중반 ‘농업위기’, ‘식량위기’를 겪으면서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를 힘있게 내밀면서 고도로 집약적인 우리 식의 농법인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도록” 하였다.¹⁵⁾ 그런데 주체농법이 토대로 하고 있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는 기본적으로 전력이나 석유와도 중요한 관련을 맺고 있는 고에너지모 생산방식¹⁶⁾이다. 특히 화학비료의 생산은 석유나 석탄생산과 직결되어 있어서 원자재의 감소는 화학비료의 생산에 직접적인 영

15) 김석빈, 『우리 나라 농촌문제해결의 역사적 경험』(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8), 508쪽.

16) 1970년대 중반 북한의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남한의 3배이고 일본보다 조금 적은 수준이고 비료사용은 세계 최고수준이었다고 한다. Jon Halliday, “북한의 수수께끼”(1981), 편집부 편역, 『서구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본 북한 사회』(서울: 중원문화, 1990), 87, 89쪽.

향을 주게 되고 그것에 의존하는 농업 역시 감산을 면치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국제적 환경이 급변하는 1990년대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을 예고하게 된다. 이러한 조건에서 북한은 의식주 가운데 ‘식’문제를 일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아, ‘식의주’로 불러왔다.

또한 한국정부의 북한 GNP 연평균증가를 추정치는 1980년대 4.8%, 1970년대 16.0%이고 미국CIA의 같은 항목의 경우, 1980년대 5.8%(1978~1984), 1970년대 10.4%를 기록하고 있다.¹⁷⁾ 그 결과 제2차 7개년 계획기간(1978~1984년)이 마친 다음, 미성장부분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2년여의 완충기를 거쳐야했다.

1980년대 북한은 자신의 웅대한 전망을 제3차 7개년 계획기간(1987~1993)이 끝나는 시기로 잡았으나 결국 제3차 7개년 계획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시기를 맞아 조난당하고 말았다. 1990년대 후반 선언된 ‘강성대국’에서도 완전 승리한 사회주의 사회의 전망은 뚜렷하지 않다.

한편 북한은 완전 승리한 사회주의 사회에 대한 이상을 수많은 평양 시내의 건축 조형물로 표현하였다. 이미 언급한 류경호텔¹⁸⁾은 1987년 착공되어 105층까지 외관은 완성되었으나 프랑스와의 공사대금 체불과 계약 불이행으로 1990년 중단되어 그대로 있다. 1980년대에는 류경호텔과 같은 대형건물이 시공되었을 뿐만 아니라 평양산원(1980), 창광원(1980), 빙상관(1982), 인민대학습당(1982), 평양개선문(1982), 고려호텔

17) 양문수, 『북한경제의 구조: 경제개발과 침체의 매커니즘』(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29쪽.

18) ‘류경(柳京)’은 평양의 옛말로서, 2003년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을 기념하여 준공된 ‘류경정주영체육관’ 역시 평양의 옛말을 붙였다. 그런데 중국 연변 조선족자치주 연길 시에 가면 류경호텔이 있는데 그것은 북측이 운영하고 있는 작은 호텔인데 평양의 류경호텔을 연상시켜 씁쓸하다.

(1985), 만경대 소년학생궁전(1988), 만경대구역 안골 청춘거리(1988), 평양교예극장(1989), 동평양대극장(1989), 5·1경기장(1989), 청년호텔(1989) 등이 1980년대 북한의 대표적인 건물들이다.¹⁹⁾ 또한 평양의 문수거리, 창광거리, 버드나무거리, 복새거리, 광복거리 등의 대규모 아파트들도 김정일식 사업방식인 ‘큰통사업’의 정신에 따라 다각형아파트, ‘S’자형, ‘Y’자형, 바람개비형, 계단형 등으로 다양성을 추구하며 건축되었다.²⁰⁾

이러한 1980년대 대형건물이나 고층아파트 건설은 ‘완전승리한 사회주의’를 향한 북한의 이상이 담겨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런데 류경호텔 공사가 중단된 것은 마치 북한의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향한 이상의 중단이자 좌절이며 1980년대 북한 사회의 문제를 적시하는 대표적인 상징이기도 하다. 그런데 고난의 행군이 끝났음을 선언한 이후 북한이 내걸고 있는 ‘강성대국’이라는 그들만의 꿈은 바로 류경호텔과 같은 이상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겠다. 실패했지만, 중단은 말하지 않는 북한 사회. 그게 1980년대 북한 사회이다.

1980년대 북한의 이상이자 최대 고민인 완전 승리한 사회주의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식의주 문제부터 해결해야 했다. 또한 식의주 해결의 기초가 되는 사회보장제도의 수립과 확대는 사회주의 평등의 이념을 실현하는 것이고 북한의 우월성을 표현하는 근거로 주장된다. 다음에서는 1980년대 북한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살펴해보도록 한다.

19) 이왕기, 『북한 건축 : 또 하나의 우리 모습』(서울 : 서울포럼, 2000).

20) 위의 책, 67쪽; 김귀옥·정영철, “북한 ‘인민’생활세계연구”, 통일원 편, 『'96 북한 및 통일연구 논문집』(서울 : 통일부, 1996), 218쪽.

3. 빈밥그릇과의 전쟁

북한의 인구는 1970년 1,490만 여명에서 1990년이 되면 2,000여만 명으로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 밥그릇수도 급증하게 된다. 북한이 안고 있는 완전 승리한 사회주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성장과 분배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했다. 분배에는 일차적으로 개인에게 지급되는 생활비와 사회주의 평등의 신념을 표현하는 사회복지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우선 1980년대 북한의 사회복지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기로 한다.

1) 북한형 사회복지국가의 수립과 확대

할리데이(Jon Halliday)는 1970년대 북한이 일본과 서구에 심각한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과중한 외채를 감당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줄이지 않는 것을 포함하여 북한의 수수께끼를 언급한 바 있다.²¹⁾

북한 사회주의의 이상, “노동자·농민의 천국”이라는 개념은 사회복지제도의 수립으로 표현된다. 사회복지지는 2차적 분배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즉 임금,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생활비’²²⁾가 가치의 1차적·직접적 분배라면 사회 및 국가복지는 가치의 2차적·간접적 분배이며 복지제도는 공산주의적 평등의 실현과정이기도 하다. 1980년대 임금구조에

21) Jon Halliday, “북한의 수수께끼”, 93쪽.

22) 북한의 생활비는 원론적으로는 “노동일에 의한 분배”로 규정되지만, 생활비에는 세금부분이 원천 징수되어 있다. 원천 징수된 부분이 제2차분배로서 사회복지 형태로 평균적으로 분배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분배는 생활비, 상금(보너스), 장려금 등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강영수, “노동에 의한 분배는 사회주의사회의 객관적 법칙”, 『근로자』, 2호(1985), 70쪽.

있어서 최저임금과 최고임금 간의 격차가 3배 이상을 넘지 않음으로써 1차적 분배에 있어서 비교적 형평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²³⁾

북한의 사회보장제도 수혜층은 여성, 어린이, 학생, 환자, 노인 등 상당히 폭넓은 편이고 의료보장, 연금, 산업재해, 무상의무교육제도는 1940년대 후반 도입되기 시작하여 1980년대 중반에 거의 완비하게 된다.²⁴⁾

그 중 가장 이른 시기에 도입된 것은 탁아 관련한 제도였다. 탁아는 여성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과 영·유아에 대한 초기사회화의 국가 독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마리 토끼라는 효과를 갖게 된다. 1987년경에는 탁아 및 유아원 수용아동이 200여만²⁵⁾이니 1986년 말 인구에서 탁아 및 유아원 수용대상 인구 251만 583명 가운데 80%에 달한다.²⁶⁾ 다시 말해 영유아를 데리고 있는 가정에서 여성이 가내작업반이거나 가두지원반 등의 가두여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탁아소에 맡길 수 있게 되었다.²⁷⁾

23) 백옥인, “북한의 일상생활”, 강정구 외, 『북한의 사회』(서울 : 을유문화사, 1990), 191쪽.

24) 김연명, “한반도의 냉전체제가 남북한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중앙대학교 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1994), 135쪽. 북한에서는 1980년대 이러한 업적을 과시하기 위하여 같은 시기에 다음과 같은 책들을 발간했던 것으로 보인다. 손전후, 『사회생활의 민주화경험』(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86); 승창호, 『인민보건사업 경험』(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86); 리철희, 『식량문제해결 경험』(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86); 김재한, 『어린이보육교양경험』(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86); 김석빈, 『우리 나라 농촌문제해결의 력사적 경험』(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88) 등.

25) 방완주, 『조선개관』(평양 : 백과사전출판사, 1988), 186쪽.

26) Eberstadt & Banister, *The Population of North Korea*(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1992), 40쪽.

27) 김선업, “북한의 탁아정책의 변화과정”(동국대학교 사회학 석사학위논문, 1994), 70쪽.

계층별로 보면 아동을 제외하고는 여성에 대한 복지제도가 많은 편이다. 여성에게 주어졌던 100% 유급 산전산후휴가일이 1986년이 되면 기존의 77일에서 150일로 확대된다. 또한 1980년 3월 1,500여명을 입원시킬 수 있는 병상과 2,000여 개의 병실을 가진 여성전문병원인 ‘평양산원’이 완공되어 무상으로 여성에게 시혜를 줄 수 있게 되었다. 동시에 협동부문의 모든 여성에게도 차츰 적용되어 나갔다. 1980년대 중·후반 이후 모성보호조치에 따라 해당되는 모든 여성의 출산기능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월 1회의 유급 생리휴가를 인정하고 있다. 임신한 여성의 건강진단을 매달 1번씩, 출산이 가까워지면 보름에 1번, 일주일에 1번씩 정기적으로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또 산모에게 수유시간을 주고 있다. 수유시간은 생후 1년 이하의 유아를 가진 어머니의 경우 오전·오후 각 2회 각 30분씩, 1년 이상의 유아를 가진 어머니의 경우 오전 오후 각 1회 각 30분씩 할당되어 있다. 또한 임신부들 가벼운 업무에 배치하는 조치와 시간외노동, 야간노동 금지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인민보건법’이 1980년에 공포되어 무상의료체계가 모든 북한 주민에게 적용되었다. 그럼으로써 모든 노동자와 사무원들에게 유급휴가제를 실시하였고 휴가는 휴양소 시설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었다.²⁸⁾ 주요 산업지구와 노동자구들에 산업치료예방기관들을 설치하여 1982년에는 1960년에 비하여 산업병원수가 143.8%로 성장하였다고 한다.²⁹⁾

이시기 획기적인 것은 1985년 “협동농민들에게 사회보장제를 실시할 데 대하여” 법령이 제정된 점이다.³⁰⁾ 그전까지는 국영농민을 제외한 협

28) 리기섭, 『사회주의적민주주의』(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87), 69쪽.

29) 송창호, 『인민보건사업 경험』, 50쪽.

30) 위의 책, 28쪽.

동농민의 경우 사회보장제도의 시행에서 제한을 받았으나 1980년대 중·후반부터는 전 농민에게 사회보장제도가 적용되어 협동농민들도 노동자·사무원과 동일한 실업수당이나 퇴직 후 연금을 받게 되었다.³¹⁾

이러한 제도 수립과 내용 속에서 1980년대 북한은 복지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북한과 같은 사유재산제도가 없는 사회에서 복지 제도는 개인에 대한 내일에 대한 약속이며 믿음이다. 설령 오늘 많은 돈을 벌지 못하거나 오늘 풍요로운 식탁에 앉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나의 노동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나눠 먹을 수 있고, 내일 내가 일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안정된 삶을 보장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전 계층에게 국가의 정당성 수준을 높일 수 있다. 그런데 제한된 국가재정 속에서 사회복지를 모든 계층에게 확대한다는 것은 사실상 전 주민에 대한 강도 높은 착취가 존재하는 것이고, 과잉 평준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제도적 시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국가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가에 달려 있다. 1980년대 북한 세출 재정에서 사회보장비(사회문화비)가 차지하는 평균비율은 약 20%³²⁾(경제비 64%, 국방비 14%)를 차지하여 1990년대 경제난 시기, 커다란 재정적 부담이 되었을 것이고, 사실상 감소를 가져왔을 것으로 추론하게 된다. 또한 1980년대 중반 사회보장 대상자가 과거의 노동자·사무직 근로자에서 농민에게 까지 확대되어 사실상 북한 주민 대부분이 사회보장의 수혜를 받게 된다. 제한된 국가예산에 비해 일정한 사회보장비를 고려하면 양은 늘어나되, 질은 떨어졌을 수 있다. 다시 말해 밥그릇 수는 늘었으며 밥의 양이 줄어들거나 질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1980년대 북한 식탁이 아닐까 싶다.

31) 국토통일원 엮음, 『북한최고인민회의자료집』, 4(1988), 729쪽.

32) 국토통일원, 『북한경제통계집』(1986), 157쪽.

2) 계속되는 대중운동의 일상화

북한은 전후 복구 과정에서부터 1958년 협동화운동에 이르는 일련의 사회주의 혁명과정을 소위 ‘혁명적 균중노선’과 그에 따른 대중운동에 의지하여 수행하였다.³³⁾ 북한식 혁명적 균중노선은 대중의 혁명적 열기에 기반 하되 대중에 대한 목적의식적인 지도가 결합하여 작동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청산리정신·청산리방법’에 반영되어 있다. 특히 1970년대는 김정일 후계체계가 인정되면서 김정일이 지도하는 일련의 대중운동이 주창되었다. 당의 지도와 “더 크고 더 빠르게”³⁴⁾라는 김정일식 대중운동이 1970년대 등장하여 1980년대 각종의 대형 사업으로 결실을 맺어갔다. 즉 1980년대에는 김정일식 대중운동이 제도화되는 시기였다.

이미 앞에서 말했듯이 1980년대에는 완전 승리한 사회주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이상으로 가득 차 있었으나 북한의 주변 정세는 어둡기만 했다. 그런 상황에서 도로나 철도와 같은 부족한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해야 했고, 1960, 70년대의 노후할 대로 노후해진 기계 설비를 교체 및 확충해야 했으며 특히 1989년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앞두고 대형 조형물이나 아파트 등을 계속 신축했다. 제한된 재화와 기술로 사회주의 제도를 정비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법으로서 북한은 집중적이고 신속한 대중운동을 최대로 활용하였다. 또한 대중운동으로 비대한 국가기구의 관료주의적 병폐를 해결하는 일석이조를 꾀하기도 하였다.

1980년대 대중운동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73년 김정일에 의해 발

33) 김근식, “북한의 ‘혁명적 균중노선’ 연구”(서울대학교 정치학 석사학위논문, 1991).

34) 정영철, “1970년대 대중운동과 북한 사회”, 『현대북한연구』, 6권 1호(2003), 149쪽.

기된 '3대혁명소조운동'은 1980년대에 계속되어 1984년 9월 '3대혁명 소조원대회'와 88년 2월의 '3대혁명소조결성 15주년 중앙보고회'에서 황장엽이 한 보고에 따르면 3대혁명소조는 공장·협동농장·각 기관과 학교 등에 적게는 2~3명, 많게는 30~40명 규모로 파견, 북한 전역으로 확산되어 있다고 한다. 1973년부터 11년 반 동안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은 연인원 총 10만 8천 7백여 명이며 1984년 9월 당시 파견 인원 4만 6천 6백여명이었다고 한다.³⁵⁾

그 외에도 그는 많은 대중운동을 제기하고 수행해 나갔다. 대중운동에는 1970년대 중반 김정일이 제시한 '속도전'과 결합하여 계획경제 기간이 끝날 때나 기념적인 국가 행사가 있을 때 노동력을 집중하는 노동동원운동이나, 공장이나 기업소에서의 생산성향상을 위한 노동력경쟁운동, 농업에서의 생산성향상운동 등 각 부문에서 전개되었다.

1980년대 대표적인 노동동원운동에 속하는 '80년대 속도창조운동'은 김일성 탄생 70년기념을 위해 각종의 창조물을 건설하는 데 일대 혁신을 일으키고 제2차 7개년 계획을 성과적으로 달성하려는 균중적 생산혁신운동으로 1982년 직업총동맹 제6기 3차 전원회의에서 처음으로 제기하였다. 이 속도운동을 통해 주체사상탑, 개선문 건립, 김일성 경기장, 인민대학습당, 창광거리, 평양산원과 빙상관, 남포갑문, 태천발전소, '북부철길' 등이 진척되었다.³⁶⁾ 이와 비슷한 속도전운동인 '2백일전투'는 1988년 2월 20일부터 그해 9월 9일 정권 창립 40주년까지의 2백일 노력운동³⁷⁾인데, 이는 1989년 세계청년축제를 앞두고 건축물들을 앞당겨 완공하려는 데 의도도 담겨 있던 것으로 보인다.

35) 김귀옥·김채운, "변혁기 북한의 계급과 계급정책", 『변혁기 사회주의의 계급과 계급정책』(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222쪽.

36) 박동원, "'80년대 속도창조운동을 벌리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근로자』, 9호(1985), 68쪽.

37) 『노동신문』, 1988년 9월 15일.

다음으로 공장에서의 노동력경쟁운동은 여러 가지가 있다. 1961년 4차당대회에서의 당시 수상 김일성의 지시에 기원을 두고 있는 ‘새기준·새기록창조운동’은 1981년 김정일의 지시로 본격화되었다. 매년 7~8월을 ‘새기준·새기록 창조운동월간’으로 설정하여 북한 전역의 공장·기업소 및 개별 근로자들간의 노력경쟁운동을 집중적 전개하였다. 1980년대 정무원과 각 도의 행정·경제지도 위원회가 주요부문의 공장·기업소에 대한 ‘새기준·새기록창조운동’의 ‘표준공장’을 설정한다.³⁸⁾ ‘4·15기술혁신돌격대’들은 공장이나 철도운수부문 등에서 새로운 기술을 발명하거나 개발하여 생산공정에 적용함으로써 원료, 자재 등 단가당 자재비를 절감하는 운동을 벌어나갔다.³⁹⁾

또한 ‘26호 선반을 따라 배우는 충성의 모범 기대창조운동’은 평양 방직기계공장의 26호선반에서 ‘설비관리’의 모범을 창조함으로써 발단이 된 군중운동으로 1982년 6월 17일 북한전역으로 전개되었다.⁴⁰⁾ 이 운동이 설비관리를 통하여 기계설비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감가상각을 지연시키는 데 의의가 있다면 그와는 달리 ‘1985년 6월 공작기계 새끼치기운동’은 선진 기계설비를 모방과 개발을 통하여 자체 생산하는 데 의미가 두어졌다. 이는 1950년대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⁴¹⁾에 기원을 두고 1985년 6월 김일성주석이 함경북도를 현지지도하던 중 공장기계새끼치기운동을 군중적 사업으로 호소하면서 시작되었다. 후진적인 기계를 현대화하려는 의도에서 선진기계를 모방하여 자체적으로 현대화시키려는 운동이다.⁴²⁾ 이 운동은 1980년대 북한의 기계설비

38) 『노동신문』, 1993년 7월 5일.

39) 권오현, “생산잠재력의 효과적 리용은 중요한 경제건설과업”, 『근로자』, 6호(1985), 60쪽.

40) 『연합뉴스』, 1999년 3월 11일.

41) 김귀옥, “북한의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에 관한 한 연구”(서울대학교 사회학 석사학위논문, 1991), 42~43쪽.

의 노후와 대외경제와의 교류가 제한됨으로써 빚어지는 문제의 심각함을 드러내는 하나의 예이기도 하다.

또한 농업에서의 생산성향상운동으로서 ‘다수확군쟁취운동’ 등을 있다. 1989년 ‘알곡’생산목표 1천5백만톤의 알곡생산기지를 점령하여 ‘먹는 문제’ 해결하기 위한 노력경쟁운동으로서 20만톤군, 18만톤군, 15만톤군, 12만톤군, 10만톤군, 7만톤군, 5만톤군 등으로 차등화시켜 목표 제시하여 군들간의 식량증산경쟁을 유발시키려는 운동이다.

또 다른 대중노력동원운동으로서 ‘숨은 영웅 따라배우기 운동’을 들 수 있다. 이 운동은 “사회성원들을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혁명가로 만들고 그들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발양하여 사회주의 건설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키기 위한 대중적 운동”이라고 했다. 1979년 10월 김정일의 발기로 시작되었으나 1980년대 중반이 되면서 확산되었다. 즉 이 운동은 특히 김일성이 1986년 2월 노동당 제6기 11차 전원회의 기간 중 5명의 ‘숨은 공로자’를 초청, 훈장을 수여하고 이어 ‘숨은 영웅 따라배우기 위한 평양시 근로자궐기모임’(1986. 2), ‘숨은 공로자대회’(1986. 10)를 개최하면서, 북한의 핵심적인 노력경쟁운동으로 확산되었다. 1989년 이 운동 발기 후 10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열린 ‘기념보고회’에서는 1989년 10월 현재 중앙과 도·시·군에 등록된 숨은 영웅은 모두 1만 5,500여명이라고 한다.⁴³⁾

‘속도’에 관련된 운동은 주로 노동력동원을 위한 대중운동인데, 김달 홍같은 고려호텔 종업원은 18년 동안 ‘충성의 지원 돌격대’⁴⁴⁾로 참가한 기록을 갖고 있기도 하다.⁴⁵⁾ 그러한 대중노력운동에 대한 여러 가

42) 리자방, “‘1985년 6월 공작기계 새끼치기운동’의 거대한 생활력”, 『근로자』, 5호(1989), 56쪽.

43) 연합뉴스, 『북한용어400선집』(서울: 연합뉴스사, 1999), 144쪽.

44) 돌격대 노동은 무상이 아니라 북한에서 사무원이 받는 정도의 임금노동이다.

45) 『천리마』, 제10호(1993).

지 비판 중에서 중요한 허점으로 한 북한이탈주민은 “70일전투, 200일전투 등의 노력경쟁운동도 며칠이 지나면 시들해져 시간만 때우는 일상이 반복되어 노동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한다. 황광철은 200일전투에서 계획의 절반도 이루지 못했다”는 증언도 있다.⁴⁶⁾

공장이나 산업부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술창안이나 설비관리를 둘러싼 운동은 현장에서 거의 일상생활화되어 있다. 이것은 남북경협の実무자에 의해서도 증언되고 있다.

1992년도에 보낸 생산보조기구가 10년이 지나, 교체를 해야 할 것들을 그쪽 노동자들은 반짝반짝 빛나게 닦아서 관리를 상당히 잘 하고 있었어요 우리공장에 비교를 하면, 환경이나 설비는 우리보다 훨씬 낙후하지만 관리를 하는 면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국가에 대한 교육, 등 그러한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강압적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가서 그런지는 몰라도 많이 자유로운 것 같아요…… 책임감과 조직적인 것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책임감이 강했어요. 일할 때 여러 가지 모습을 봐서…… (안민의 증언)⁴⁷⁾

이러한 증언은 남북경협에 참여하는 어느 한 기업 실무자로부터 듣는 얘기가 아니라, 대부분 현지 실무경험이 있는 관리자나 기술자들로 부터 듣게 된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부족한 설비, 부족한 자금 속에서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계설비들을 제 몸처럼 아낄 수밖에 없다. 또한 독립채산제 하에서 공장과 기계가 움직여야 생활비와 사회복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설비관리운동은 국가 및 기업소의 입장에서나

46) 민족통일연구원, 『통일문화연구』(서울민족통일연구원, 1994), 111쪽.

47) 김귀옥·김정훈, “남북 교류의 확대와 통일의 전망”, 『남북한 사회통합의 길』(서울 : 금왕출판사, 1991), 163쪽.

노동자 개인의 입장 모두에서 상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생활화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지극한 설비관리의 정성과 반대되는 증언도 발견된다. 즉 철저한 설비관리는 기계 설비에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하는 조심스러운 기계의 사용으로 인해 남측이 요구하는 생산력을 올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노후한 기계설비나 ‘공작기계새끼치기’에 의해 생산된 견고성이 의심스러운 기계설비로 생산을 하다보니 자연히 설비관리를 우선시 하는 것이 생활화되고, 그 결과 생산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결론이다.

심지어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들이나 기술자들이 기술혁신을 하다보니 사고도 비일비재했던 것 같다. 한 예를 남대현의 현장소설, 『청춘송가』에서 찾을 수 있다. 열공학을 전공한 주인공이 제철소에 들어가 현장에서 열재료를 연구하면서 설비나 기계를 훼손시키는 일이 있었다.⁴⁸⁾ 경공업과학원 방직연구소 연구사인 최정녀의 경우에는 640여회 실험 만에 북한 자재에서 나오는 재료로 첨가제를 만들기도 했다.⁴⁹⁾

북한이 말하는 자력갱생의 원칙과 경제적 효율성·성장의 딜레마에서 북한은 전자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는 1980년대 이후 경제적, 사회적 성장의 지체를 가져왔다. 공업의 저발전은 결과적으로 일용품의 부족을 낳았고, 주민의 일상생활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했다.

3) 내부 자원 동원과 자력갱생의 일상화

1980년대 북한은 대외교류로부터 수입되는 기술이나 자금이 희소해

48) 남대현, 『청춘송가』(평양 : 문예출판사, 1987)(서울 : 공동체, 1988).

49) 강영희, “과학자의 량심”, 『조선녀성』, 2호(1986), 25쪽.

지면서 내부에서 재원을 충당해야 했다. 북한 재정의 세출구성비에서 ‘인민경제비’는 1967~1971년에는 40%대로 떨어지지만, 1972년 이후 50%대로 전환하여 1980년대가 되면 60%대에 진입하는 반면 시기별 국방비의 등락은 인민경제비의 등락과 대조를 이룬다.⁵⁰⁾ 북한에서는 1950년대 전후 복구과정에서 “중공업우선, 경공업·농업동시발전전략”을 택해왔으나, 그 전략에서 중공업은 소비재생산을 위한 기계생산을 의미하였다.⁵¹⁾

그러나 이 정책은 1967년 이후 중요한 변화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국방·경제병진노선을 채택하여 ‘무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군사기술사업’, 즉 군수산업을 확대해나갔다. 즉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결코 군사기술사업을 소홀히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현대전쟁은 많은 인원과 최신군사과학과 기술자재들이 동원되며 고도로 조직화되는 전쟁이다”⁵²⁾는 인식이 깔려 있었다. 따라서 국방비 외에도 ‘인민경제비’ 속에도 군수산업관련 비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경제비에 국방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문제는 결국 주민들의 생활필수품 관련 경공업 생산에 문제를 낳게 된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북한에서는 1950년대 후반 이래로 ‘중소규모지방산업’을 육성하는 데 주력하였다.

중소규모의 지방산업은 지방의 예비를 동원리용하여 큰 국가투자 없이 인민소비품의 생산을 늘이기 때문에 경공업발전을 위한 국가투자를 덜게 하고 그만큼 중공업건설에 자금을 돌릴 수 있게 한다. 또한 중소규

50) 서진영 편, 『현대중국과 북한40년-자료와 통계』(서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89), 328쪽.

51) 김귀옥, “북한의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에 관한 한 연구”, 36쪽.

52) 사회과학출판사 편,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 주체사상 총서3』(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서울: 백산서당, 1988), 143쪽.

모의 지방산업공장들은 빨리 건설할 수 있고 생산주기가 짧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축적원천을 늘이며 창조된 사회순소득의 일부를 중공업건설에 리용할 수 있다.⁵³⁾

지방공업은 대개 의류공장이나 식료품공장, 생활필수품공장 등이었고, 해당 원료생산지와 결합되어 있었다.⁵⁴⁾ 흥미로운 것은 지방산업공장 설립을 1960년대 들어 ‘군(郡)거점전략’과 함께 추진한 점이다. 1980년에는 대개 한 개의 군은 평균 18개의 지방공장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⁵⁵⁾

경공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또 다른 정책은 대중운동과 결합되어 추진되었다. 1984년 김정일은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 데 대하여”에서 언급했듯이 ‘8월3일 인민소비품생산운동’을 전개하게 된 것이다. 즉,

금속공장, 기계공장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공장, 기업소들에서 생활필수품을 생산하는 직장이나 작업반을 잘 꾸리고 공장에서 나오는 부산물과 폐설물로 여러 가지 일용잡화를 많이 생산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까. 가두인민반들에서도 가내작업반을 조직하고 일용잡화를 많이 생산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까.⁵⁶⁾

가내작업반이 중심이 된 ‘8월3일 인민소비품생산운동’은 1984년 발기가 되었지만,⁵⁷⁾ 이 운동의 원조라 할 수 있는 동대원동 가내작업반

53) 홍승은, 『자립경제리론』(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4), 163쪽.

54) 강근식, “지방원료기지를 꾸리는데서 얻은 몇 가지 경험”, 『근로자』, 8호 (1984), 40쪽.

55) 김일성, “지방공업을 더욱 발전시키자”(1980.6.), 『김일성저작선집』, 8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304쪽.

56) 김정일,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 데 대하여”(1984.2.),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엮음, 『김정일저작선』(1991), 198쪽.

57) 後藤富士男에 따르면 가내작업반, 부업반이 1950년대 있었다고 하여 이 운

원의 증언에 따르면 “1978년에 십여명의 여성들로 일을 시작한 우리 작업반이 오늘은 200여명의 여성들을 망라한 큰 집단”으로 되었고, 12개의 조에서 130여 가지의 일용품을 만들고 있다고 한다.⁵⁸⁾ 다시 말해 1970년대 말부터 가정부인들이 중심이 되어 가내작업반을 조직하여 공장에서 나오는 유희자재, 폐자재 등을 얻어 일용품으로 재활용하여 직매점, 수매상점 등에 내다 팔기 시작하였다. 동대원동에서 가내작업반을 했던 한 북한이탈여성 김 모 씨의 증언에 따르면 1970년대 말, 1980년대 초 가내작업반을 만들 때 작업반원은 20명 정도였는데 대개 10년 이상 공장을 다니다 결혼하고 나이가 들면서 그만 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술이 비슷하게 좋은 편이라고 했다. 작업반은 ‘공동노동·공동분배’의 원칙을 갖고 있었고 수입금에서 30%정도는 공장에 주고 나머지를 분배하는데, 월평균 40~45원 정도 분배받을 수 있었다고 했다.

처음 동대원동 가내작업반에서 이러한 운동을 시작했을 때만해도 그것은 직장을 그만둔 가정부인들이 가계를 보조하기 위한 부업이었으나 가정부인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84년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으로 국가적으로 인정으로 받게 되자 급속도로 이 운동이 퍼져나가 1984년 말에는 생활필수품 생산액이 1983년에 비해 120% 신장하였다고 한다. 심지어는 평양 제2백화점과 같은 대형 상점에서도 가내작업반을 조직하여 일용잡화 9만6천여점을 생산하기도 하였다.⁵⁹⁾

‘8월3일 인민소비품생산운동’은 경제학적으로 보면 중앙계획 이외의

동 자체가 1950년대 기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지적하는 것은 아니다. 양문수, 『북한경제의 구조: 경제개발과 침체의 매커니즘』, 355쪽.

58) 강영희, “‘당의 뜻 꽃피는 일터’-평양시 동대원구역 가내작업반들을 찾아서”, 『조선여성』, 6호(1984).

59) 송병덕, “소비품생산을 균등적 운동으로 벌리는 것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중요담보”, 『근로자』, 3호(1985), 66~67쪽.

영역에서의 소비품생산, 시장의 존재라는 점에서 개혁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⁶⁰⁾ 결과적으로 볼 때 이러한 운동은 1990년대 경제난 상황에서 시장을 확대시키는 촉진제가 되었고, 2000년대 들어 북한 당국이 일련의 개혁조치를 취해나가게 되는 맹아였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8월3일 인민소비품생산운동'이 진행된 후 1990년에는 이 운동을 통하여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가내작업반과 부업반을 조직운영하고 가내편의봉사사업을 벌인다고 하여 우리 나라에서 자본주의가 되살아나지는 못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자본주의가 되살아 날수 있는 사회경제적 조건이 없습니다. 가내작업반, 부업반성원들과 가내편의봉사원들이 8월3일인민소비품을 생산하여 실현시키는 과정에 수입을 좀 많이 얻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자기의 노동의 대가로 얻은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가내작업반과 부업반을 조직운영하고 가내편의봉사사업을 벌리는 과정에 일부 사람들 속에서 지나치게 많은 수입을 얻고 개인리기주의를 부리는 현상을 비롯하여 부정적인 요소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사상교양사업을 잘하고 해당한 경제적조치를 취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⁶¹⁾

북한이 주장하듯 개인적으로 돈이 많다고 하여 자본주의 자체가 살아나기는 어렵다. 즉 사유재산과 개인 기업 활동이 금지되어 있고, 1980년대 시장경제에 대한 단호한 금지조치가 시행되고 있던 상황에서 돈이 많은 것과 개인 기업을 통한 이윤 증식으로 곧 바로 이어지는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1990년대 경제난과 맞닥뜨릴 때 시장경제의 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생활필수품들의 경우 다음의 김정일의 담화에서 알 수 있듯이,

60) 양문수, 『북한경제의 구조 : 경제개발과 침체의 매커니즘』, 355쪽.

61) 김정일, “경공업혁명을 철저히 수행할데 대하여”, 『로동신문』, 1990년 9월 7일.

양적·질적 수준이 떨어져 주민들의 불만을 가져오기도 했다. “지금 경공업부문에 시제품이나 견본품은 잘 만들어 전시하고 자랑하지만 실지 인민들에게 공급하는 상품은 가지수도 많지 못하고 질도 그리 높지 못합니다.”⁶²⁾ 다시 말해 1980년대 내내 북한은 경공업혁명을 강조해왔고, 1950년대 절대빈곤은 극복했고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는 사라졌다고 할지라도 주민들의 소비생활에는 항상적인 부족이 따랐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운동을 사회학적으로 보면 다른 측면에서의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가내작업반이나 부업반이 중심이 된 이러한 활동 이면에는 1980년대 북한 사회에서 두드러지지 않으나 일정한 긴장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대체로 공식부문의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 특히 가정부인이나 노인들이었다. 그들이 조직적으로 느슨해지지 않도록 당생활이나 근로단체 생활을 강조하여 정치사상이 떨어지지 않도록 더욱 신경을 써야 했다. 그럼에도 자유로운 처분권을 가진 참여자들이 대부분 공식생활과는 일정한 거리를 둬으로써 사회적 기강이 해이해질 경우 튕겨 나올 가능성이 열려 있었다. 그들을 둘러싼 원심력과 구심력을 어떻게 제어하는가는 정치사회학적 과제가 제기되었다.⁶³⁾

둘째,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에는 역설적인 의미가 담겨있기도

62) 위의 글.

63) 1990년대 후반 기강이 문란해진 단체생활을 조율하고 기율을 세우기 위하여 정치사상교양을 강조하지만, 학습중심으로 교양하지 않고, 1990년대 이후 어느 때보다도 단체에서 예술소조활동을 장려하고 있고, 부업과 물질적인 유인제를 사용하고 있다. 지역 단위의 여맹원들이 공동부업으로 가금기르거나 나무심기, 양식하기, 퇴비생산하기, 가내공업반 등을 통하여 개인 가계에도 보탬을 주고 경제난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조선녀성』, 2호(2000), 28쪽.

하다. 한편으로 가내작업반, 부업반에 기초한 이 운동은 개인에게 이기심을 부추겨줄 수도 있고 시장의 전초병을 키워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공식부문으로부터 일정한 정도 자립적이고 유연한 층을 형성함으로써 1990년대 극단적인 경제난 속에서도 극도의 내핍을 견딜 수도 있게 한 측면도 공존한다. 다시 말해 이러한 요인들이 역설적으로 북한의 급속한 안으로부터의 붕괴, 즉 내파(implosion)를 미봉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운동은 빈 밥그릇문제를 드러내면서 동시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노력을 기다리고 있다. 바로 1980년대 ‘봉사혁명’이다.

4) 유통망의 동맥경화증을 뚫어라 : 봉사혁명의 등장

1958년 북한은 사회주의 협동화운동을 완수함으로써 농업부문만이 아니라 상업부문도 국영이나 협동적 소유로 단순화되었다. 그 때부터 지금까지 북한이 안고 있는 고민의 하나는 생산과 소비를 어떻게 이어나가는가이다. 시장의 무정부성을 비판해온 북한은 계획경제 하에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주문제’ 공급방식을 취해왔다. 다시 말해 북한의 도매 및 소매상업기관은 주문제에 기초하여 생산기관으로부터 상품을 인수하고, 주민들의 상품수요, 특히 노동자에게는 식료품, 농민들에게는 공산품 등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공급하는 공급제 위주의 상업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 주된 방향이었다.

그러다보니 계획경제 하에서 생산과 소비, 수요와 공급을 잇는 유통의 중요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진다. 주문제식 공급 방식에서 유통은 행정적으로 작동하게 되는데, 그 일을 맡은 것이 인민위원회와 행정위원회와 같은 국가기관이다. 이 기관들이 주문의 양과 시기를 정확히 파

악하여야 공장이 제대로 공급하여 수요를 제때 맞출 수 있다.

그런데 기관이 비대해지고 관료화되면 수급이 막혀 생산물이 제때 공급되지 않는 일이 종종 생길 수 있다. 그런 문제가 생활일용품 공급에 발생할 경우, 주민들의 일상생활은 자연스럽게 곤궁하게 되고 그것이 식량일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일상적인 허기가 강요될 수 있다. 1980년대 초에도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지금 일부 군인민위원회와 군행정위원회 일군들은 할 일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긴장하게 일하지 않고 있습니다”⁶⁴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한마디로 인체의 동맥에 해당하는 유통망에 동맥경화증이 발생할 징조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던 북한은 과거에도 있던 봉사사업개선운동을 1980년대에는 ‘봉사혁명(service revolution)’에서, 1990년대에는 ‘정춘실따라배우기운동’에서 그 답을 찾은 듯하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1980년대 봉사혁명으로도 생활일용품과 공적서비스의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자, 1990년대 ‘정춘실 운동’을 시작한 것이다.

1980년대 봉사혁명은 봉사업종에 해당하는 국영상점 및 직매점, 수매상점, 백화점과 같은 상점망뿐만 아니라 이발소, 목욕탕, 세탁소, 양복점 등과 같은 편의시설이나 ‘사회급양시설’, 즉 식당이나 밥공장, 빵공장, 목욕탕 등 일반인들의 일상생활에서 떼놓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가사노동을 사회화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시설에 대하여 제기되었다.⁶⁵ 즉 “당에서는 이미 우리 인민들의 생활을 보다 윤택하고 문명하게 하기 위하여 경공업혁명과 봉사혁명을 일으켜 인민들에게 여러 가지 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 공급”⁶⁶할 것이라고 하

64) 김일성, “지방공업을 더욱 발전시키자”, 313~314쪽.

65) 김정일,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 데 대하여”, 202쪽.

66) 김정일, “주민들에 대한 상품공급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였다. 물론 80년대 봉사혁명 이전에도 ‘봉사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어왔다.⁶⁷⁾ 그런데 1980년대 이러한 용어가 등장한 것은 주민들의 일용품에 대한 수요의 확대와 다양화에 비해 공급기관의 신속하고 정확한 봉사에 계속 문제가 지적됨으로써 제기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공영역이 된 상점이 관료화됨으로써 주민의 수요에 무관심했던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상점들의 경우 공급방법을 다양화하여 ‘아침봉사, 저녁봉사, 순회봉사, 주문송달봉사, 이동판매, 세분판매’ 등을 실시하고 시간도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시간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였다.⁶⁸⁾ 다시 말해 상점들이 손님을 기다리지 않고 손님들에게 접근하여 주민이 필요한 때 필요한 것을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심지어 북한 당국은 봉사혁명을 확대하기 위하여 가내작업반여성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평안남도 평성시의 어느 가내작업반여성들이 옥수수쌀(옥쌀)을 재료로 하는 밥공장을 경영하는 것을 홍보하였다.⁶⁹⁾ 이 사례 역시 사적서비스로 부족한 공적서비스부문을 보완하는 의미와 여성의 노동력과 서비스를 흡수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듯하다.

1980년대 봉사혁명은 별로 성공을 거둔 것 같지 않다. 그래서 봉사사업은 1990년대 ‘정춘실따라배우기운동’으로 뒤를 잇게 된다. 즉 1980년대 말부터 오늘날까지 ‘정춘실운동’은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품공급부문에서 발생한 무사안일주의, 형식주의 폐단을 막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정춘실은 ‘우리가정수첩’이라는 것을 발명하

에 대하여”(1984.8.)

67) 김일성, “공업을 발전시키며 인민봉사사업을 개선할 데 대하여”, 『김일성전집』, 34(1965.1~1965.2)(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68) 한장근, “봉사혁명을 일으키는 것은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중요한 요구”, 『근로자』, 9호(1989), 63쪽.

69) 한복희, “소문없이 큰일한 녀성들”, 『조선녀성』, 3호(1986), 31쪽.

여 군 내의 손님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필요시기에 맞추어 미리 장만해 놓고 손님이 주문하면 즉시 제공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1990년대에는 유통망의 막히는 정도가 아니라 공급물의 절대 부족 속에서 유통망이 공동화되는 상태에 빠지게 됨으로써 정춘실운동 자체는 오히려 무의미해졌다고 볼 수 있다.

4. 맺음말

1980년 6차당대회는 어느 때 당 대회보다도 “위대한 승리를 이룩한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과시하였다. 1980년대는 승리에 대한 강한 신념으로 시작하였으나 1980년대 후반 경제 성장은 모든 영역에서 지체를 맞게 되었다. 마치 류경호텔과 같은 모습으로 1990년대에 진입해야 했다.

1980년대 북한 사회에서는 사회주의권의 개혁·개방 속에서 바터시스템(barter system)으로 유지되던 사회주의분업체계가 사실상 해체되던 시기 1970년대 급성장을 계속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하여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전 주민이 속도전을 치러야 했다. 급속도로 팽창한 사회복지제도와 각 분야의 다양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하여 제도적 틀 안에서 1970년대 일상화되어온 혁명적 균중노선, 대중운동은 가속을 붙여 나갔다.

1970년대 대외교류의 길을 나섰던 북한은 석유파동으로 인해 1차 개방에 좌절하였다. 1980년대 사회주의권의 개혁, 개방은 북한에 또 다른 도전이 되었고, 그 치명타를 1990년대 초반에 맞게 되었다. 그러한 시련 속에 북한은 더욱 문호를 동여매고 자립의 길을 갔다.

자립노선으로 북한은 과연 성장과 분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을까? 먼저 북한은 사회주의 이념과 체제를 공고히 세우기 위하여

사회복지체제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탁아의 문제나 모성 보호의 문제, 무상의무교육제를 통한 교육 문제 등에서 우선적으로 배려되었고, 실업연금, 산업재해연금, 사회주의예방의학을 국영에 속하는 노동자, 사무직을 넘어서 1980년대 중반에는 협동농민에게까지 확대 실시하였다. 즉 밥그릇 수는 1980년대 인구수만큼 늘어났다.

그 밥그릇을 채우기 위하여, 또는 그것이 제대로 유통하도록 하는 방식을 대중운동이나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과 같은 재활용운동, 봉사혁명 등에서 찾았다. 북한의 인적, 물적 내부자원을 최대한 동원하는 것은 경제적 측면에서만 유용한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적 사회관계를 재생산하는 것에도 관련이 있다. 또한 기존에 제도화된 공식 부문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요소나 기술, 정보, 사회적 관계들을 제도화 영역에 지속적으로 결합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노력은 1990년대 극심한 경제난에 새로운 요소, 즉 시장경제가 확산되는 데에도 기여하지만, 또한 부분적이거나 개인이나 사회의 생존에 있어서 유연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숨은 기능(covert function)을 발휘하기도 하였다.

1980년대 북한 사회. 이상은 크고 갈 길은 먼데, 길은 끊겨 있다. 이제 그 끊긴 길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하는 것이 1990년대 북한 사회가 직면한 최대의 시련이자, 목표가 되었다.

참고문헌

<1차 문헌>

- 강근식, “지방원료기지를 꾸리는데서 얻은 몇 가지 경험”, 『근로자』, 8호(1984).
장영수, “로동에 의한 분배는 사회주의사회의 객관적 법칙”, 『근로자』, 2호(1985).

- 강영희, “‘당의 뜻 꽃피는 일터’-평양시 동대원구역 가내작업반들을 찾아서”, 『조선녀성』, 6호(1984).
- , “과학자의 량심”, 『조선녀성』, 2호(1986).
- 권오현, “생산잠재력의 효과적 리용은 중요한 경제건설과업”, 『근로자』, 6호(1985).
- 김석빈, 『우리나라 농촌문제해결의 력사적 경험』(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8).
- 김일성, “공업을 발전시키며 인민봉사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 『김일성전집』, 34(1965.1~1965.2)(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 ,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1986.12), 『김일성저작선집』, 9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부, 1987).
- ,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대하여”(1983.6), 『김일성저작선집』, 9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부, 1987).
- , “지방공업을 더욱 발전시키자”(1980.6), 『김일성저작선집』, 8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재환, 『어린이보육교양경험』(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6).
- 김정일, “경공업혁명을 철저히 수행할데 대하여”, 『로동신문』, 1990년 9월 7일.
- ,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 데 대하여”(1984. 2.),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엮음, 『김정일저작선』(1991).
- 남대현, 『청춘송가』(평양: 문예출판사, 1987)(서울: 공동체, 1988).
- 리경혜, 『녀성문제해결경험』(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0).
- 리기섭, 『사회주의적민주주의』(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7).
- 리자방, “1985년 6월 공작기계 새끼치기운동’의 거대한 생활력”, 『근로자』, 5호(1989).
- 리철희, 『식량문제해결경험』(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6).
- 박동원, “‘80년대 속도창조운동’을 벌리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근로자』, 9호(1985).
- 방완주, 『조선개관』(평양: 백과사전출판사, 1988).
- 사회과학출판사 편,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 주체사상 총서3』(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서울: 백산서당, 1988).
- 손전후, 『사회생활의 민주화경험』(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6).
- 송병덕, “소비품생산을 균등적 운동으로 벌리는 것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중요 담보”, 『근로자』, 3호(1985).
- 승창호, 『인민보건의사업 경험』(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6).
- 정송남, “사회주의나라들과 경제기술적 협조와 교류를 강화하는 것은 우리당의 일관된 방침”, 『근로자』, 10호(1984).
- 최정근, “사회주의경제건설과 대외무역”, 『근로자』, 12호(1984).

- 한복희, 『소문없이 큰일한 여성들』, 『조선여성』, 3호(1986)
 한장근, 『봉사혁명을 일으키는 것은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한 생활조건을 마련해 주기 위한 중요한 요구』, 『근로자』, 9호(1989).
 홍승은, 『자립경제리론』(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4).

〈2차 문헌〉

- 고승효, 김한민 옮김, 『북한사회주의발전연구』(서울: 청사, 1988).
 국토통일원, 『북한경제통계집』(1986).
 국토통일원 엮음, 『북한최고인민회의자료집』, 4(1988)
 김귀옥, 『북한의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에 관한 한 연구』(서울대학교 사회학 석사학위논문, 1991).
 김귀옥·김정훈, 『남북 교류의 확대와 통일의 전망』, 『남북한 사회통합의 길』(서울: 금왕출판사, 1991).
 김귀옥·김채운, 『변혁기 북한의 계급과 계급정책』, 『변혁기 사회주의 계급과 계급정책』(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김귀옥·정영철, 『북한 '인민'생활세계연구』, 통일원 편, 『'96 북한 및 통일연구 논문집』(서울: 통일부, 1996).
 김근식, 『북한의 '혁명적 균중노선' 연구』(서울대학교 정치학 석사학위논문, 1991).
 김민웅, 『북한의 '사회주의완전승리' 테제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정치학 석사학위논문, 1991).
 김선임, 『북한의 타아정책의 변화과정』(동국대학교 사회학 석사학위논문, 1994).
 김연명, 『한반도의 냉전체제가 남북한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중앙대학교 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1994).
 김영윤, 『북한 협동조합 개편 방향에 관한 연구』(서울: 북한연구원, 2002).
 돌베개편집부 엮음, 『북한 '조선로동당'대회 주요 문헌집』(서울: 돌베개, 1988).
 민족통일연구원, 『통일문화연구』(서울민족통일연구원, 1994).
 백옥인, 『북한의 일상생활』, 강정구 외, 『북한의 사회』(서울: 을유문화사, 1990).
 서진영 편, 『현대중국과 북한40년-자료와 통계』(서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89).
 신지호·김연철, 『남북경협 GUIDE LINE』(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1).
 양문수, 『북한경제의 구조: 경제개발과 침체의 매커니즘』(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연합뉴스사, 『북한용어400선집』(서울: 연합뉴스사, 1999).
 월간조선사, 『월간조선』, 10월호(1995).
 이왕기, 『북한 건축: 또 하나의 우리 모습』(서울: 서울포럼, 2000).

- 이태섭, “국가주석제와 북한 정치체제의 변화”(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석사학위논문, 1992).
- 정영철, “1970년대 대중운동과 북한 사회”, 『현대북한연구』 6권1호(2003).
- , “김정일 체제 형성의 사회정치적 기원 : 1967~1982”(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01).
- ,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사회학 석사학위논문, 1996).
- , 『북한의 개혁·개방 : 이증전략과 실리사회주의』(서울 : 선인, 2004).
-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1997).
- 『연합뉴스』, 1999년 3월 11일.
- Eberstadt & Banister, *The Population of North Korea*(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1992).
- Halliday, Jon, “북한의 수수께끼”(1981), 편집부 편역, 『서구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본 북한사회』(서울 : 중원문화, 1990).

Abstract

North Korea in the 1980s : with facing the forked roads to development or frustration

Gwi Ok Kim(Sungkonghoe University, Sociology)

In 1980, the Workers' Party of the DPRK expressed pride and confidence for their past achievement during the Sixth Congress. Consequently, North Korea started the 80's with strong confidence and optimism.

However, by the end of the 80's, North Korea confronted with obstacles and challenges in almost all the aspects of its economy. Like the Ryukyung Hotel of Pyongyang city, which was never completed, North Korea entered the 90's with incompetence.

North Korea tried to maintain its high growth rate of the 70's by continuing relying on and re-accentuating mass mobilization movement based on self-reliance, despite the crack on 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 (CMEA) as many of socialist countries adopted economic reform policies during the 80's.

Was it possible for North Korea to achieve growth and distribution simultaneously? In order to achieve two seemingly difficult goals,

North Korea consolidated ideological base and the regime by laying foundation for social welfare system. As such, during the 80's social welfare measures such as establishment of child care facilities, implementing 11 years compulsory education, and socialist preventive medi-care system, were applied not only to state workers, but to collective farm workers as well.

However, state's burden also increased as a result of extending social welfare measures to collective workers. In order to ease the burden, North Korea made attempts to find still untapped resources within and implemented reform like measures such as 'the August 3rd consumption and service promotion movement'. In the 80's, there seemed to be no solution for achieving North Korea's grandiose objective. Nevertheless, as North Korea entering the 90's, ordeals of heavier magnitude awaited.

Key Words : Revolutionary Mass Line, mobilization movement, Independent National Economy, North Korean society, North Korea of 1980s